

96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상 수상

신기계 개발로 수입대체, 수출 늘릴 터

소 병 길 / (주)신용기계 상무이사

지

난 10월 30일 한국무역클럽에서는 통상산업부와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주최한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통상산업부와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상은 많은 기계인들에게 사기를 불어 넣어 주어 우리나라 기계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장업계에도 신용정밀 소병길 상무가 립스틱성형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국내 화장품관련 기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신용정밀은 그간 꾸준한 연구개발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신용 기술의 원동력인 소병길 상무는 화장품회사에서 12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유저가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업계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번에 상을 받은 계기가 된 립스틱성형기는 이미 지난 92년 개발되어 균일성 및 고급화로 대량 생산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4백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고 그 제품의 우



수성을 인정받아 프랑스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 상무는 소개했다.

신용은 이 기계의 충전방식 기술개발로 온도 80~100°C까지의 내용물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응용, 삼성정밀화학에 파란핀류의 내용물을 충전하는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이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평양제약에 안약충전기를 납품하여 약 50만불의 수입대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일찌기 사업을 시작한 형님 밑

화장품회사 근무 경력 바탕으로 유저가 원하는 제품 적시 공급

에서 자라며 어려운 시기도 겪어야 했다고 토로하는 소 상무는 라미화장품 입사후에도 학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만학의 길을 걷기도 할 만큼 학업에 대한 열의가 깊다.

그후 92년 형님이 운영하던 신용정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수출은 물론이고 각종 특허를 취득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간 립스틱성형기는 일본특허, 국내 실용신안 취득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용기 내용물 주입 및 밀봉장치로 특허취득, 용기의 뚜껑 체결장치로 특허공고, 화장품 용기 용 충전 밀봉기가 의장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공정을 알고 그에 맞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을 펼쳐 왔으며 이에따라 외국기계만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인식도 차차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다'고 소 상무는 피력했다.

신용은 특히 국내에서 화장품 공장을 덤키 베이스로 플랜트를 하고있는 유일한 업체로 공장의 캡파만 지정해 주면 소기계, 시스템등 전체공장 레이아웃까지 작업이 가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소 상무는 앞으로 이 분야에 주력하여 화장품 플랜트 수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특히 동남아, 멕시코, 남미 등 국가들은 화장

품 공장을 건설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이 분야를 밝게 내다보고 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신용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새로운 설비개발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기계메이커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맺는 소 상무는 부인과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신용은 그 이름만큼이나 거래에 있어 '신용'을 중시하는데 계속적인 신규 기계기술 개발과 아울러 전사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 또한 소 상무는 ISO 9000 인증 획득 목표 등 축적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기업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지금의 신용이 있기까지 기술의 모든 원동력은 종업원들의 성실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소 상무는 이번 상의 공로를 종업원들에게 돌리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K]**

이선하 기자